

“MZ세대 직원부터 고객까지, 폭 넓은 소통”

젊은직원들 블루·레드팀 2기 출범
손태승 회장 참석...격의없는 소통
새 모델에 높은 인지도 아이유 발탁
게임팬 겨냥 e스포츠 마케팅도 활발

우리금융이 2030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에 적극 나섰다. MZ세대 직원부터 고객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행보가 특징이다. MZ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기존 보수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미래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 깔려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우리금융의 미래는 MZ세대 고객에 달려있다”며 “MZ세대를 공략해 디지털 미래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했다.

●MZ세대 직원과 소통 강화

먼저 MZ세대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최고경영자(CEO)들의 행보가 눈에 띈다. 세대장벽을 허물고 MZ세대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함이다. 손태승 회장은 최근 디지털혁신 오피니언 조지 ‘블루팀’과 ‘레드팀’ 2기 출범식에 참석했다. 블루팀은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등 자회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젊은 직원들로 구성됐다. MZ세대 고객 관점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레드팀은 기존 디지털부서 직원들로 구성됐다. 2기부터 전사적 디지털 전환 확대를 위해 일반부서 직원도 포함시켰다.

손 회장은 “고객과의 최접점에 있는 직원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남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원덕 우리은행장도 최근 MZ세대 직원과의 소통행사를 실시했다. 우리은행의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젊은 혁신 리더그룹인 이노싱크와 본부서 혁신조직 등 MZ세대 직원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행장은 직원들을 집무실로



우리금융이 2030 MZ세대 고객과 직원을 겨냥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위부터 시계방향) 'MZ특화 플랫폼' 구축 선포식에서 MZ세대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 우리금융 새 모델 아이유, 4월2일 열린 LCK스프링 시상식에서 우승팀인 T1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이원덕 우리은행장(가운데).

초청해 “은행장실은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주고, 신속의원 창출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발굴에도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이유 모델 발탁에 e스포츠 후원도

우리금융의 새 모델로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발탁한 것도 MZ세대 공략과 무관치 않다. 아이유는 2030 MZ세대를 중심으로, 기성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가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 광고모델 추천 관련 임직원 설문조사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전 세대에 걸쳐 가장 높은 추천을 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측은 “아이유를 한글로 해석하면, I(나)와 YOU(너)를 합한 ‘우리’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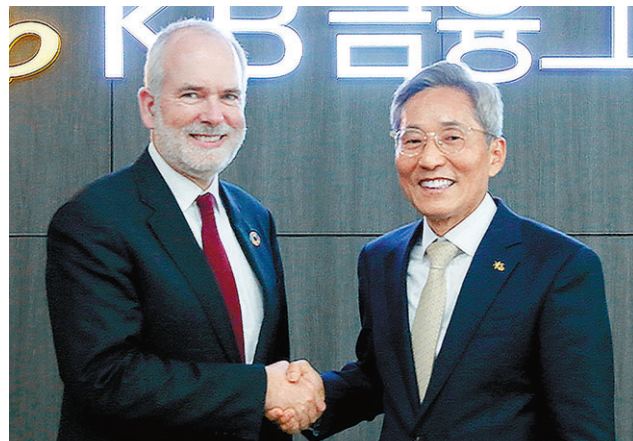
브랜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며 “우리’라는 브랜드의 특별한 힘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했다.

e스포츠 마케팅도 한창이다. e스포츠 관련 이벤트 및 후원을 통해 게임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MZ세대 고객과의 접점을 찾는 것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2023년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LCK 경기장 내 광고와 현장 이벤트를 통해 브랜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POSTECH(포항공대) 내 e스포츠 콜로세움 구축도 지원했다. e스포츠 콜로세움은 e스포츠 경기를 관전하며 가볍게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여기에 우리금융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한국e스포츠협회 국가대표팀을 공식 후원한다. e스포츠는 항저

우 아시안게임에서 8개 부문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이번 후원을 통해 디지털 종합금융그룹과 MZ세대를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의 자리매김을 노린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밖에도 우리금융은 ‘MZ특화 플랫폼’ 구축도 추진 중이다. MZ세대가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향후 우리금융의 증권 부문 확대 계획과도 연계해 투자지원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개인화에 기반해 ‘MZ세대가 눈 뜨면 제일 먼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는 재미있고 편리한 일상생활 솔루션 서비스’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옥 기자 jjay@donga.com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토마스 양커 크리스텐센 덴마크 기후대사. 사진제공 | KB금융

윤종규 KB금융 회장, 탄소중립 앞장

글래스고 금융연합 아태 지역 자문위원 선임
덴마크 기후대사 만나 중립이행 역할 논의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윤 회장은 8일 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의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 자문위원으로 선임됐다. GFANZ는 전 세계 45개국 450여 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연합체다. 지난해 4월 금융을 통해 탄소 제로 경제를 촉진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했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아태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해 싱가포르에 첫 아시아-태평양 사무소를 개설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윤 회장을 비롯해 라비 메는 싱가포르 중앙은행 총재, 엄우중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무총장, 진리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이사장 등 아태 지역 기후와 금융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했다. 향후 아태 지역이 친환경 경제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식을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9일에는 유엔(UN) 기후변화·해양 특사를 역임한 바 있는 토마스 양커 크리스텐센 덴마크 기후대사를 만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금융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KB금융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윤 회장은 “30년에 걸친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전환 경험과 한국의 첨단 기술력이 만나 기후변화 대응에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분야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정옥 기자 jjay@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하나은행, 청소년그루터기재단-소방청과 함께 ‘같이 서기’ 협약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흥교 소방청장, 강호창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상임이사(오른쪽부터). 사진제공 |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최근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소방청과 함께 ‘같이 서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방공무원 및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함이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 소방공무원 전용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소방관)’을 출시했다.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순직 소방공무원 가족을 위해 소방공무원 가족 생계비 지원, 소방공무원 청소년 자녀 및 화재 피해 청소년 자녀 공부방 리모델링, 소방공무원 청소년 자녀를 위한 힐링캠프 운영 등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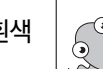
상상인금융, 웹 예능 ‘보부상’ 선택

상상인금융이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상상인’을 통해 2030 MZ세대 고객을 위한 유튜브 웹 예능 ‘보부상’을 선

보였다. ‘보람찬 부업 생활 with 상상인’이라는 뜻으로, 개그맨 엄지윤과 조진제가 출연해 다양한 부업을 체험하는 내용을 담는다. 특히 파이어족(경제적 자립으로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과 마녀리시(다양한 소득을 구축해 단기간에 부를 확대하려는 경향) 트렌드와 함께, 재테크 팁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MZ세대 고객에게 쉽고 재밌는 재테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14일(화) 음력: 5월 16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쉬울 때이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음주로 인한 낭비에 주의하라.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집안일이나 친척문제에 바쁜 일이 생겨난다.	시시한 일들로 인해 해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지금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이팔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시킨다. 변화가 있는 날이다. 대인관계에 신경쓰라.	무슨 일에 있어서나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 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쭈물 밀바닥은 흐려도 위 일수록 맑듯이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가정에서는 배우자로 인해 신경 써야 될 일이 있겠으나 무난히 해결 되겠다.	진취적인 마음가짐과 결단력을 발휘하면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고 분주한 활약이 기대된다. 주변의 도움으로 바라는 바가 성취될 수 있으니 주변인들과의 연정이나 다름에 주의하라. 사업 면에서 새로운 계획이 있겠고 의외의 성과가 기대된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어떠한 위협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다. 사업상 또는 사적인 일도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사방이 위협으로 막혀있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맥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경제적 고통이 따른다.	현재는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고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적극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행운이 오게 되고 뜻하지 않은 투자 운이 생기며 선택은 마침내 욕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뻣뻣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욕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	몸과 마음이 굳어지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망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이 있어야 된다.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오늘의 날씨

서울 30/30	인천 20/30	춘천 30/30
18 29	18 28	16 25
강릉 80/80	대전 30/30	전주 30/30
16 20	17 25	18 24
광주 60/60	대구 60/60	부산 60/70
18 25	17 21	18 22
창원 60/70	제주 60/6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8 23	19 21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44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영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충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